

의대 정원 확대두고 ‘인력 부족’ vs ‘의료질 저하’ 온도차

2006년부터 정원 3058명 불변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서 12대 대학 정원채워
공공의대 신설 등에 기대감도

현장선 ‘양질 의료서비스’ 기반
교육강화·의료시스템 개선 요구

부족한 의사수요만큼 의대 지원자가 늘어나는 추세지만,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다. 대학가에도 의대 쏠림이 심화된 만큼 본격적인 추진이 예상되지만 현장에서는 의료 질 저하를 우려하고 있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부가 의료계와 원만한 합의를 맺고자 중단했던 의대 증원 문제가 재점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9일 2023년 업무보고에 의대 정원 증원 내용을 포함하면서 주춤했던 의대 정원 확대가 재추진될 전망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2006년부터 연간 3058명으로 불변 상태이다.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의대법 제정·의대정원 확대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뉴시스

입시계에서도 의대 선호가 확실하다고 평가되는 만큼 부족한 의료 인력을 채우기 위한 의대 증원은 꾸준히 요구될 것으로 보인다. 2023학년도 대입에서 이공계 인재들의 수시 변수 중 하나로 급증한 의대 선호도가 꼽히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 이사는 “약대 모집

인원이 1700명이나 증가했음에도 의대, 치대, 한의대 등에서 경쟁률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메디컬 선호 현상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다”며 “금년도에 서울대 주요 공대 합격생들의 절반 이상이 빠져 나간 상황에서, 다른 선택지가 있었다면 의대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올해 의대 수시에서는 지역인재 40% 의무선발 첫해인 만큼 의대 선호도가 급부상했다. 2023학년도 서울·수도권 의대 수시전형을 살펴보면 12개 의대 모두 수시에서 정원을 채웠다. 이는 최근 5년새 첫 기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수도권 의대의 수시 미등록 인원은 지난해 11명에서 올해는 0명, 지방권도 지난해 의대 수시 미선발 52명에서 12명으로 급감했다.

공공의대 신설 기대감도 탄력을 받고 있다. 공공의대는 지방 등 의료 취약지에서 10년 이상 근무하는 조건으로 입학하게 되며, 공공의료 전문인력 양성에 목적이 있다. 입학금, 수업료, 기숙사 비용 등 정부 지원율이 높아 더욱 주목받는다.

지역 국회의원들 역시 의대 설립 관련 법안 발의에 나서고 있다. 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중단된 상태인 의정 협의체를 재개해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공공의대 설립 등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며 “정부가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면 국회의 입법권을 동원해서라도 의대

신설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의대 등 의대 정원 확대는 찬반 의견이 팽팽한 사안이다. 부족한 의사 인력의 관점에서 공급에 초점을 둔 찬성 입장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양질의 의료서비스에 기반한 의료 인재들의 교육 강화 등 의료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복지부에서도 구체적인 추진 시기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가 필수적이다.

의료계에서는 2020년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의대 정원 확대 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논의 안전에 대한 우선순위를 지적하며 의료 시스템 개선 없이 수요를 확대할 경우 오히려 왜곡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10일 임현택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앞에서 1인시위에 나서기도 했다.

/신하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동국대 씨너렉스, 중기부 지원 ‘팁스’ 선정

창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
2년간 R&D자금 5억원 지원받아

동국대학교 창업기술원은 ‘조정밀 위성항법 장치 전문 스타트업’ 씨너렉스가 중소벤처기업부 ‘팁스(TIPS) 프로그램(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에 최종 선정 됐다고 11일 밝혔다. 씨너렉스는 동국대 창업기술원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이다.

팁스는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민간 주도로 선발해 연구개발(R&D) 자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민간 투자와 정부 자금을 매칭하고 창업 사업화·해외마케팅 자금 등을 연계 지원해 미래유망 창업기업을 집중 육성한다.

팁스에 선정된 씨너렉스는 자율주행 자동차, 드론, 로봇 등 무인이동체가 자율적으로 주행 및 작업하는데 필요한 정밀측위 항법 장치를 개발하는 국내 리딩 스타트업이다. 현재, 국내 주요 대



창업보육센터 씨너렉스 입주공간에 서있는 박재덕 대표. /동국대

기업 및 자율주행, 드론 스타트업을 포함해 약 150개 이상 고객사에 개발한 장치를 공급하고 있다. 항공안전기술원 주관 2022년 드론국제 샌드박스사업자로 선정돼 개발 완료한 드론 전용 위성항법장치의 신제품 출시도 앞두고 있다.

씨너렉스는 팁스 운영사인 한국과학기술지주의 추천으로 선정됐다. 향후 2년간 5억원의 R&D 자금을 지원받게

된다. 앞으로 연구개발 자금 수혜를 통해 ‘GPS 음역지역 대응이 가능한 다중센서 퓨전기반 GNSS RTK 항법제어기 제조 및 양산화 기술’ 과제를 독자 수행할 예정이다.

씨너렉스는 2018년 3월, 동국대학교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해 분야별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다양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수행해왔다. 동국대와 서울산업진흥원 주관의 2022 Start ‘UP Boot’ UP 창업 IR 경진대회 대상, 서울지역 창업보육센터 연합 BOOT-UP IR Competency 한국창업보육협회장상 입상 등을 기반으로 Seed 투자를 유치하기도 했다.

박재덕 씨너렉스 대표는 “이번 기회를 발판으로 삼아 씨너렉스는 무인화 세상에 필요한 고도화된 조정밀 위성항법장치를 개발해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고자 한다”며 “지속적인 연구 개발을 통해 세계시장에서도 인정받는 기업이 되겠다”고 전했다.

/신하은 기자



‘2023학년도 대학생 예비취업자 발대식’에서 90여 명의 학생과 지도교수가 ‘산업안전 우리가 지키자’를 외치며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순천향대

순천향대, 재학생 90여명 예비취업 발대식

조기취업형 계약 3개학과 대상

순천향대학교는 10일 교내 유니토피아관 석경홀에서 조기취업형 계약학과인 스마트팩토리공학과, 스마트모빌리티공학과, 융합바이오화학공학과 재학생 90여명을 대상으로 예비취업자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조기취업형 계약학과 1학년 과정을 마친 3개 학과 재학생이 기업 현장에서 진행되는 실무실습을 앞둔 시점에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 개선 ▲산업안전

보건교육을 통한 기업 적응력 강화 ▲법정 교육 이수 등 예비취업자로서 갖춰야 할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민 창의라이프대학장 격려사 ▲선·후배가 함께한 멘토링 영상 시청 ▲학과별 대표 학생 발표 ▲성인지 교육 ▲산업안전 보건교육 ▲공문서 작성법 특강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첫 번째 특강은 김영경 교내 인권센터 박사가 ‘성희롱 예방 교육’을 주제로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통념과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구체적인 대처방안 등을 안내했다.

/신하은 기자

성균관-중앙대, 비납계 빛 감지소자 개발

노이즈 억제 포토디텍터 구현

기존 연구대비 빠른 속도로 빛을 검출해낼 수 있는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기반 포토디텍터(빛 감지 소자)가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페로브스카이트는 1839년 러시아 우랄산맥에서 발견된 광물의 결정구조. 페로브스카이트 구조는 높은 전자 이동과 빛 흡수성으로 차세대 태양전지의 선두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성균관대학교는 전일 교수, 김규선 박사가 왕동환 중앙대학교 교수, 장웅

식 박사 공동연구팀과 함께 납을 사용하지 않은 페로브스카이트 소재 박막의 안정성 향상을 위해 패시베이션 공정을 도입해 노이즈가 효과적으로 억제된 포토디텍터를 구현하는 데 성공했다고 11일 밝혔다.

패시베이션은 표면의 반응을 막기 위해 용매 등의 처리를 통해 피막을 형성하여 부동태화하는 공정이다.

최근 무기 감광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차세대 감광 소재로 조성에 따라 흡광도 조절이 가능한 페로브스카이트 소재가 각광받고 있지만, 납으로

인한 유해성으로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기존의 납계 페로브스카이트는 납 이온과 할로겐 이온 사이의 결합력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온들이 구조 내에서 쉽게 이동이 가능한데, 이러한 특성은 외부 전하의 주입을 쉽게 해 포토디텍터 성능 저하의 가장 큰 원인인 노이즈 발생을 야기해 왔다.

이에 공동연구팀은 납을 대체할 수 있는 성분인 주석 소재를 활용, 안정적으로 박막을 형성할 수 있는 패시베이션 기술을 적용해 양질의 비납계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개발하는데 성공했다.

/신하은 기자

호서대, 베트남서 초·중학생 AI·SW 교육

SW기초교육의 3D pen 등 진행

호서대학교는 AI·SW중심대학사업단 주관으로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에서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9일부터 10일까지 해외 AI·SW 교육활동을 펼쳤다.

이번 해외 교육은 베트남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체결한 교육협력, 교육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됐고 ▲SW기초교육의 3D pen ▲아두이노를 활용한

라인트레이서 교육 ▲구글 티처블 머신 활용 AI 체험학습 및 해커톤 경진대회를 운영했다.

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한 ‘구글 티처블 머신 활용 AI 체험학습 및 해커톤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은 2인 1조로 이뤄진 하노이 한국국제학교 11학년 서유현, 김도균 그리고 11학년 구지현, 심보겸 두 팀이 수상했다.

/신하은 기자